

아침세평

박병훈

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



중세 말엽, 서구에서 나병을 자취를 감졌다. 성문 밖이나 변두리 어디에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은 사람의 그림자가 비추지 않는 불모지로 남아 있었다.

이 때 유럽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듯 300~400년 동안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무엇인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다.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시킬 희망이 필요했다. 중세 중엽에는 나환자 수용소가 1만 90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고대하던 다른 질병의 등장으로 나환자 수용소는 중세 말엽에 이르러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나환자 수용소는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한 막대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며 전용해왔다. 1589년 한 판사의 보고에 의하면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나환자 수용소에는 이미 50년 전부터 환자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 있던 나환자수용소는 곧 폐병환자와 정신질환자로 채워졌다.

나병의 소멸은 결코 의학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나병은 사라졌지만 저주받은 장소들과 의식들은 지속됐

칼라스의 재판과 허수아비

다. 나병에 대한 의식은 나병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한 것이 아니라 나병과의 격리, 나병을 저주 속에 묶어두기 위한 의식이였다.

나환자 수용소에서 환자들이 자취를 감춰 가는 동안 나병보다 더 오래 기억된 일은 나환자의 모습에 부여된 이미지였다.

수용소에 격리된 나환자들은 집단에 소속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축출되지도 않은 존재의 기괴한 이미지 그 자체였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무관심과 안전의식의 부재 속에 희생된 희생자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와 다르지 않다.

시간이 지나자 나환자나 나병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들은 대상만 달리한 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격리 방식이 몇백년이 지나도 이상하리만큼 반복 재생됐다. 부랑인, 범죄자, 광인들이 나환자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광인들을 주제로 한 많은 창작물들이 탄생한다. 지금도 광인들의 지식과 지혜가 난무하고 있다. 이들은 평온하고 조용한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미쳐서 날뛰는 봉두난발의 무사들이다.

미셀 푸코에 따르면 광기는 인간의 연약함, 꿈과 환상에 연결돼 있다. 인간이 자기자신과 유지하고 있는 미묘한 관계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광기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1761년 10월 13일 오후 7시 프랑스 남부 도시인 툴루즈에서 장 칼라스와 그의 가족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칼라스와 그의 부인

안로즈, 장남 마르크앙투안, 차남 피에르, 하녀 잔이 둘러앉았다. 칼라스 부부는 두명의 아들 외에 셋째 아들 루이, 막내 아들 도나 그리고 두 명의 딸인 나네트와 안을 두었다. 개인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루이는 개인교를 믿는 가족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막내 도나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두딸은 여행 중이었다. 저녁을 먹으려는 순간 큰 아들 친구인 라베스가 찾아온다. 저녁을 먹은 후 라베스를 배웅하러 칼라스와 차남 피에르가 아래 층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큰아들이 바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큰아들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치열한 음모론이 전개된다. 주장이 모여 추문이 되고 추문이 반복되면서 진실로 변하고 있었다.

결론은 큰아들의 개종을 싫어한 칼라스가 주도해 큰 아들을 살해한 뒤 타살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칼라스는 여론의 광기에 휘말리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행정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가족들을 체포·구금해 버렸다. 큰아들은 순교자로 둔갑했고, 다섯명은 사탄이 돼버렸다. 검사는 칼라스, 그의 부인, 피에르에게는 교수형과 화형, 라베스에게는 종신노동형, 하녀 잔에게는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져 집행됐다. 이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블테르였다. 그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칼라스 재심을 청원해 무죄를 이끌어낸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허수아비 지식인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우리의 확신은 광기인가? 정의인가?

기고

임승환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4팀장



화물차 사고 예방, 면허 취득 단계부터 시작해야

있다. 하지만 실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차량의 주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이 생명과 직결된다. 비상등 점등, 갓길 안전 정차, 비상삼각대 설치, 차량 이탈 및 안전지대 대피, 관계기관 신고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차량의 추돌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고속도로 사망사고 상당수는 최초 충돌보다 사고 이후의 부적절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다. 차량 안에 머물다가 뒤따라던 차량에 추돌당하거나, 반대로 위험한 차로 주변에서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운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의 문제이며,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제는 화물차 안전교육 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우선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과정에서 고속도로 사고 대응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이론 강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 운전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몸이 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과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에도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

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는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선진 교통안전 문화는 단순한 운전기술이 아닌 위기 대응 능력에서 완성된다.

정기적인 보수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중대사고를 유발했거나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항공·철도 등 다른 운송 분야에서는 재교육과 안전훈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화물운송 분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도 화물차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의 문제로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 대응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면허 취득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고 대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복되는 화물차 사고와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은 단속이 아니라 교육에서 시작된다.

취재수첩

통합특별시 성패 가를 핵심 과제는?

이승홍

경제부 부장



군공항 이전의 의미는 단순한 소음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 광산구 산촌동 일대 820만㎡에 달하는 군공항 부지는 광주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 공간이다.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향후 수십 년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여러 공공시설 이전 사업은 부동산 개발에 치우친 나머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군공항 종전부지마저 아파트와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에 머문다면 지역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공간은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이 집적된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성돼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가 광주송정역

개발이다. 광주송정역은 호남고속철도의 관문이지만 역세권 경쟁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지역에 머무는 사람은 적다. 교통과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 역할도 아직 부족하다.

광주송정역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허브가 돼야 한다. KTX와 도시철도, 광역철도, 버스, 공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남권 교통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군공항 종전부지와 송정역세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부지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다면 광주 서남부권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재편될 수 있다. 산업과 교통, 상업 기능이 집적된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작에 불과하다. 군공항 이전이 단순한 시설 이전으로 끝난다면 통합특별시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종전부지가 미래산업의 심장으로서 거듭나고 광주송정역이 서남권 교통·경제 허브로 성장한다면 통합특별시는 비로소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완성될 것이다.

사설

양동시장 '백년시장' 됐다...지역 활력 주길

광주양동시장은 광주·전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전통시장이다. 1910년대에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매달 2일과 7일에 열렸던 장이 그 기원이며 일제 강점기 때인 1940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100여년의 시간을 서민들과 함께 해왔던 광주 양동시장이 정부의 '백년시장'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전국 10곳의 전통시장에 포함된 것이다.

백년시장은 70년 이상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간직해 전통시장을 지역 대표 브랜드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양동시장은 농수산물과 견어물, 의류,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등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성이 높아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아 시장 육상을 활용한 루프탑 문화공간 조성, 지역 축제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 광주 동구 동명동 상권도 광주 최초의 글로벌상권으로 확정됐다. 글로벌상권은 중기부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명동 상권은 독립서점과 편집숍, 개성 있는 카페와 공방 등이 밀집한 광주의 대표 청년문화 상권으로 젊은 층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핫 플레이스'다.

'동리단길'로 불리기도 하며 로컬 브랜드와 창업기업들이 이곳 상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중기부는 향후 2년간 이 곳에 최대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거리 조성, 글로벌 관광 플랫폼 연계 홍보, 외국인 친화형 서비스 구축 등을 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권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들 지역이 앞으로 단순 소비공간이 아닌 관광·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특히 체류형 관광객 증가와 소비 활성화, 로컬 창업 확대 등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잠재된 전통시장, 아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완도 '머무르는 치유관광' 기대되는 이유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완도의 바다, 숲, 섬 자원과 다양한 해양치유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 건강 증진과 체류형 관광 확대, 그리고 생활인구 증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해양 치유는 태양광, 기후, 바다, 갯벌, 해조류 등 청정된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 성수기인 7~8월을 제외하고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해양치유 바다 걷기와 바다놀이, 슬로우 아웃도어, 힐링 스테이, 전문 치유 스테이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에 개장한 완도해양치유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변 운동과 완도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식단, 쿠킹 클래스, 지역 관광지 탐방 등을 결합해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완도군은 장기 체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참가비의 최대 70%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참가비는 1박 2일 8만원, 5박 6일 30만원 수준이다.

이에 앞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5월 두 달간 4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도 실시했다.

그 결과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해변 운동, 치유 식단, 완도 투어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장애 개선, 심리적 안정 등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이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과 관광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융·복합이 결합한 해양치유 산업과 무관치 않다.

완도군은 이 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원(공공 2000억원, 민자 8000억원)을 들여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과 해양치유 호텔&리조트, 민간 해양치유 전문병원 등 민자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신지지를 거점으로 금융권역, 정산권역, 소안권역의 섬 지역 특성을 살린 해양치유시설을 유치·클러스터화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 관광 상품을 넘어 '머무는 관광' 모델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장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